

원격 수업 관련 교사의 경험과 실제* - O초등학교 중심으로 -

조용훈¹, 노미란², 성현주³, 조경화⁴, 신지영⁵

《〈 요약 〉》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교육 환경을 변화시켰다. 전면 시행된 원격 수업은 우리에게 새삼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미래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과제를 부여했다. 이런 점에 주목해서 이 연구는, 온라인 교육에 기반한 원격 수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 그것의 교육적 의미는 물론 미래 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사들이 현장에서 어떤 교육적 지향과 목적에 따라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실천했는지 그 과정을 O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분석해서 제시했다. 교사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고 설계하려고 노력했는지, 이때 고민은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질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했다. 초등학교 수업은 다양한 과목을 교수해야 하므로 교사의 부담이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온라인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등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e 학습터 활용, 콘텐츠 공동 제작, 자료 공유, 줌을 사용한 쌍방향 수업, 온라인 플랫폼 등을 사용해서 도래할 교육적 환경을 대비하는 것은 물론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관리자들과 학부모들 역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지원했다. 이 연구는 이에 관한 실제 경험사례를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미래 한국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설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주제어 : 코로나 19, 원격 수업, 교사학습 공동체, 전문적학습공동체, 쌍방향 수업, 온라인 플랫폼, 미래교육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청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CJE2020D033)에 의하여 연구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yhcho@cje.ac.kr (주 저자)
2. 오창초등학교 교사, qufrhc@naver.com (공동저자)
3. 오창초등학교 교사, hyonchu12@korea.kr (공동저자)
4. 성화초등학교 교사, startop1020@gmail.com (공동저자)
5. 오창초등학교 교사, shinjippang@korea.kr (공동저자)

I. 서론

1. 연구 목적

몇 해 전, 명망 있는 한 교육자는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한 바 있다. “2020년 온라인 교육이 한국의 전통적 교육제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박영숙 외, 『세계미래 보고서 2030-2050』, 교보문고, 2017, 151쪽) 2017년 당시만 해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 크게 실감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20년’을 특정하는 것이 궁금했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표현은 확신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측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하자 이런 경고와 예견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충격이 컸다. 물론 그 보고서는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몰해서 전세계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야기할 것이고, 따라서 전통적인 교육이 붕괴돼 온라인 교육이 실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견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바야흐로 한국 사회를 강타한 바이러스로 인한 교육적 변화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학교 개학과 등교가 연기되고 수업이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되면서 대면 수업에 익숙해 있던 교사와 학생들은 혼란을 겪었다. 대면 교육에 익숙한 교사들이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온라인 교육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했던 터라 대비책 마련에 분주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학교 현장은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 수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점차 학교는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코로나 19가 종식 되더라도 등교해서 수업하는 것만을 학교 교육으로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온라인에 기반한 원격교육과 대면 교육을 결합한 융합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 19는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교육적 환경의 변화를 요구했고 우리에게 새삼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확답하기 어렵지만, 온라인 교육이 중요하게 부상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교육 형식과 내용에도 큰 변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케 한다. 추측컨대 원격 수업이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교육적 의의는 더욱 강조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코로나 19는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에도 막대한 변화를 불러왔다.

그런데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출몰과 무관하게 이미 온라인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적 실천

을 주도한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을 여기서 특정하지 않겠지만 대개 유튜브로 활약하면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며 활동해 왔다. 과거 블로그 활동에 비해서 한층 진화한 생생한 수업 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교사와 유튜브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과연 교사의 직분에 걸맞은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을 표방한 교육 활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받았다. 교사 유튜브와 전남교육청이 협업하여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개설한 것에서 그것의 교육적 장점과 공익성이 잘 대변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온라인 교육, 즉 원격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면 현장과 재택에서의 학습은 어떻게 전개돼야 할 것인가. 이런 의문과 불안이 중요한 교육적 이슈로 부상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교사들은 원격 수업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교사만이 아니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코로나 19는 우리에게 새삼 교육의 의미를 묻고 미래 교육의 방향과 의의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했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미래교육을 실천하고 선도해야 하는 교사의 전문성이다. 교사들은 시대적 요구, 즉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시공간의 구분 없이 미래의 콘텐츠를 담아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 당국이나 관계자들은 교사들이 원격 수업을 무리 없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물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주목해서 이 연구는, 현 상황에서 원격 수업의 실천은 물론이고 장차 나아갈 방향, 그리고 그것의 교육적 의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초등학교 교사들이 어떤 교육적 지향과 목적에 따라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실천했는지 그 과정을 관찰하고자 한다. 교사들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고 설계하려고 노력했는지, 이때 고민은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원격 수업은 다양한 과목을 교수해야 하므로 교사의 부담이 크다. 이런 까닭에 교사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온라인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e 학습터는 물론이고, EBS 온라인 클래스 사용, 유튜브 등을 참고해서 수업을 잘하려고 노력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과연 그런가. 청주 소재 O초등학교(편의상 O초등학교로 칭한다) 교사들이 실제 경험했던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2. 이론적 배경

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에도 원격 수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런데

과거 원격 수업이 선택을 요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코로나19가 야기한 위기 상황에서의 원격 수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불안감이 교육계를 엄습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발 빠르게 전개된 것은 이 때문이다. 주로 팬데믹 이후의 특정 교과, 특정 학교 일부 교과를 대상으로 한 교사들의 반응과 어려움, 대처방법 등을 연구한 것이 그것이다.

서나래(2020)는 원격 수업을 진행한 초·중등 현직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상황을 점진하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은 갑작스런 수업환경의 변화에 초반에는 불안해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대비됐다. 일부는 불가피한 흐름이라 판단해서 원격 수업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적극 대비했고 일부는 ‘교실 수업이 주는 유익’과 ‘학교의 본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원격 수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교사들은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플랫폼을 운영하며 출석 체크, 학업 현황,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다. 연구자는 교사들의 유연성과 잠재력을 살필 수 있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난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외재 외 2인(2020)은 고등학교 경력 체육 교사가 겪는 원격 수업 실천의 어려움을 조사했다. 주로 플랫폼 운영과 관리, 체육 교과의 본질적 가치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내용이다. 경력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었고 피로감을 호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체육교과에 한정된 연구였지만 다른 교과 교사들의 어려움도 대변하는 것이어서 공감하는 바가 많았다. 그런데 원격 수업의 어려움은 2020년 이전 사이버 가정 학습의 운영 과정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김도헌의 질적연구(김도헌 외 3인, 2007)가 그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가 크게 새롭지는 않지만 어려움의 양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불렀고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다.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을 절감했다. 초등 영어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한 오지수(2020)의 연구에서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초상권 및 저작권 문제, 디지털기기 조작 미숙으로 인한 어려움, 학습격차 심화에 따른 대처 방법 등 교사가 직면한 난제를 복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교사들은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극심한 피로가 밀려왔고 번 아웃을 호소했다. 그만큼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연구자는 밝히고 있다.

연구의 목적이나 대상의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가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학생 관리의 어려움과 교사에게 주어진 과중한 업무이다. 서나래(2020)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했다. 교사가 개별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 교육격차를 줄이는 실제적인 시스템을 학교 차원에서 마련해서 수업을 실행하는 것, 학교 간 연계가 가능한 실습 위주의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교육청 차원의 인프라를 확충해서 실행하는 것 나아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교육 플랫폼 개발과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특정 교과, 특정 학교, 여러 학교 교사들을 심층 면담해서 원격 수업의 어려움을 밝히고 문제해결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팬데믹이 초래한 교육 상황의 변화는 모든 교사에게 심각한 도전과제를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핀 것처럼 지금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현명하게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러므로 각 개별 교사가 겪은 어려움의 정도와 양상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원격 수업을 실행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한 교사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특정 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그것의 경험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개인별, 나아가 단위 학교 차원에서 전개된 원격수업의 양상에 대해 조속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미 이현아(2017)는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개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단위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추구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학교 차원의 교사 협의 즉 협력을 통한 집단 지성을 발휘함으로써 어려움을 타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현아는 개별교사가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산재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이라면 어려움이 배가된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같은 조건이라도 적극적, 자발적으로 전문학습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교사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동안 교육 개선을 위해 함께 매진했던 노하우가 이런 예상 못한 상황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 공동체가 함께 협의하고 협조해서 난국을 타개하려고 노력할 것이 분명하다. 전문성을 발휘해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현아의 연구는 단위 학교 교사들의 협력을 강조하고 학교 차원의 교사 협의체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일깨운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개별 교사가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 연구는 시도된 바 있지만, 아쉽게도 단위 학교에서 교사 협의체를 통한 위기 극복 양상, 예컨대 팬데믹 하에서 원격 수업 실행에 대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분석은 발견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연구가 누락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문제제기로부터 비롯된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서나래(2020)가 제기한 과제, 즉 교사의 개별 역량 강화, 교육격차 를 줄이는 학교 차원의 시스템 확립, 학교 간 연계가 가능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은 물론 이현아(2017)의 교사협의체가 갖는 집단지성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특정 단위 학교를 선택해서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문화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했고 차후 원격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분석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원격수업에 임하는 개별 교사의 고군분투는 물론, 단위 학교 차원에서 원격 수업의 구체적 실천과 그 양상을 검토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현 상황에서 학교 차원의 교사 협력은 적극 권장돼야 한다. 이런 점에 주목해서 이제부터 O초등학교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O초등학교가 원격 수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교사는 물론 관리자와 교육행정직 등 학교공동체의 전 구성원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검토한다는 것이다. O초등학교의 구체적 경험 사례가 현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적 어려움에 직면한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연구 내용

O초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교사들이 어느 학교보다 발 빠르게 원격 수업을 적극 실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O초등학교는 충청북지역의 혁신학교¹⁾인 행복씨앗학교로 지정된 바 있다.

충청북도는 행복씨앗학교라는 이름으로 혁신학교의 출발을 알린 바 있다. 행복씨앗학교는 학교공동체가 협력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실현하여, 따뜻한 품성을 가진 역량 있는 민주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모델 학교이다.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중점 추진 과제는 학교 민주주의 실현,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

1) 혁신학교는 2000년대 초 작은 학교에서 시작한 자생적인 학교 살리기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지식 위주의 입시 경쟁 교육에 지친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사 주도의 운동이었다. 교육부에서 결정한 정책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자 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단위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민주적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행복한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혁신학교가 시작되었던 경기도교육청에는 혁신학교를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자율학교이다.”라고 정의한다. 2009년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으로 2010,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으로 확산되었다.(<https://www.goe.go.kr/경기교육청홈페이지> 참고)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이다. ○초등학교는 2015년 준비교를 거쳐 2016년 2기 행복씨앗학교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재지정 되어 2020년까지 5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²⁾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단일사례(single-case) 연구라 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학교 문화는 여타 초등학교에 비해 매우 독특하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따라서 팬더믹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한 경험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한다면 앞으로 닥칠 어떤 교육적 위기 상황도 적절하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초등학교 특정 사례를 통해 일반화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적절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 19가 초래한 교육적 위기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초등학교 교사들 역시 전국 대부분의 교사의 경우처럼 원격 수업이 시행된 초기에는 불안하고 막막했다.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함께 협의하고 성찰하며 원격수업의 성공적인 실천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이 연구는 그 과정을 질적으로 탐구했다고 이해하면 빠를 것이다.

원격 수업의 전면적 실행으로 교사들은 당혹했고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그런데 다소 차이가 발생했다. 담임과 전담교사는 물론 교과와 비교과, 나아가 원격 수업을 지원하는 교육공무직, 행정직, 관리자에 따라 대응이 달랐던 것이다. 이처럼 교직원들의 직급과 경력에 따라 다양한 생각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기 때문에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원격 교육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생각과 경험을 묻고 교육 전략을 검토해서 원격 수업 초기의 시행착오와 그 극복의 과정을 분석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가 장차 원격 수업의 효율적인 방향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희망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왜 원격 수업의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교육과정에 적절하게 재구성해서 학년별 특성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초등학교의 실제적인 운영 사례를 탐구해서 원격 수업 운영에 관련된 제반 형식과 내용을 파악하고 원격 수업의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초등학교의 사례가 각 단위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원격 수업의 방법을 마련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2) 2020년 사상 초유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동안의 민주적 협의 문화와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의 노력을 바탕으로 원격 수업에서도 행복씨앗학교의 철학을 담아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어 등교 수업 뿐 아니라 원격 수업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였다.(<https://www.cbe.go.kr/search/index.php>/충청북도 교육청 행복씨앗학교 홈페이지 참고)

- 첫째, O초등학교 교직원들은 원격 수업을 어떻게 수용하고 운영하였는가?
- 둘째, O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내용은 무엇인가?
- 셋째, O초등학교 교직원들은 원격 수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 넷째, O초등학교 교직원들은 효율적인 원격 수업을 위해 교육 당국에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4. 연구 방법

앞에서 우리는 왜 이 연구가 필요한지 설명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는 일이다. 아울러 사례연구 프로토콜을 개발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자료는 인터뷰, 설문 등을 심층적으로 진행해서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했다. 수집한 자료를 주제나 이슈에 맞게 유형화하고 해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해석과 분석을 통해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고 이로부터 새로운 정보와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술한 것처럼 네 가지 연구 문제를 우선 설정했다. 연구를 위해 27명 교직원의 소감문과 선정된 교원³⁾ 13명의 면담을 분석했다. 이에 대해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가. 연구 참여자

참여자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전제로 원격 수업 진행 및 지원에 관여한 직급의 교직원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양한 사례 표집을 위해서 원격 수업을 진행한 교사뿐만 아니라 원격 수업 진행을 지원해 준 교직원까지 포함했다. 참여자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참여의 익명성 등의 윤리적 내용을 참여자에게 인지시키고 동의를 받았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과의 진솔하고 솔직한 대화는 경험의 구체성을 확보해 줄 것이다. 연구 참여자의 개별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1차 연구 참여자의 특성

*교직원 : T로 표기함

참여자 수	교직원	성 별	본교근무경력	담임유무
1	T1	남	1.06	비담임
2	T2	여	0.00	비담임
3	T3	남	3.00	비담임

3) 교원이란 교사와 교장, 교감을 의미함.

4	T4	남	1.06	담임
5	T5	여	3.06	비담임
6	T6	여	1.06	담임
7	T7	여	1.06	담임
8	T8	여	1.06	담임
9	T9	여	3.06	담임
10	T10	여	3.00	담임
11	T11	여	3.06	담임
12	T12	여	2.06	담임
13	T13	여	0.06	담임
14	T14	남	0.06	담임
15	T15	여	0.06	담임
16	T16	여	3.06	비담임
17	T17	여	4.06	비담임
18	T18	남	1.06	비담임
19	T19	여	1.06	비담임
20	T20	여	2.06	담임
21	T21	남	4.05	비담임
22	T22	남	2.00	비담임
23	T23	남	0.08	비담임
24	T24	여	2.00	비담임
25	T25	여	16.06	비담임
26	T26	남	0.06	비담임
27	T27	여	0.06	비담임

수집된 27편의 소감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 내용에 실제적으로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13명의 교사를 2차 참여자로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선정된 참여자는 원격 수업을 했던 1~6학년 담임교사 6명, 3~6학년 전담교사 1명, 특수학급 담임교사 1명, 신규교사 1명, 핵심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장 2명, 관리자 2명이다.⁴⁾

<표 2> 2차 연구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수	교직원	성 별	본교근무경력	학년
1	T1	남	1.06	비담임
2	T3	남	3.00	비담임
3	T5	여	3.06	비담임
4	T6	여	1.06	담임

4) 교직원이 생각한 원격 수업 개선과 지원 방법에 관한 것은 행정직·교육공무직의 소감문에 충분히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면담에서 제외하였다.

5	T8	여	1.06	담임
6	T9	여	3.06	담임
7	T10	여	3.00	담임
8	T12	여	2.06	담임
9	T13	여	0.06	담임
10	T14	남	0.06	담임
11	T15	여	0.06	담임
12	T16	여	3.06	비담임
13	T20	여	2.06	담임

나. 분석 자료 및 수집 절차

소감문은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작성되었으며, 수집된 소감문을 바탕으로 면담 질문을 추출하였다. 면담은 2021년 1월 초까지 이루어졌다. 소감문 양식은 충북소통메신저나 SNS를 활용하여 소감문 양식을 전송했고 자유롭게 작성하였다.(부록 1 참조) 수집된 소감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예시나 내용이 모호해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혹은 좀 더 실제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한 13명을 중심으로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지원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구성원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면담참여자는 관리자 2명과 학급 담임교사 6명, 전담교사 1명, 원격 수업 관련 업무부장 2명, 특수학급 담임교사 1명, 신규교사 1명이다.

면담은 반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사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받은 소감문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모든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연구 참여자의 언어를 그대로 전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통화 및 ZOOM을 활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다. 자료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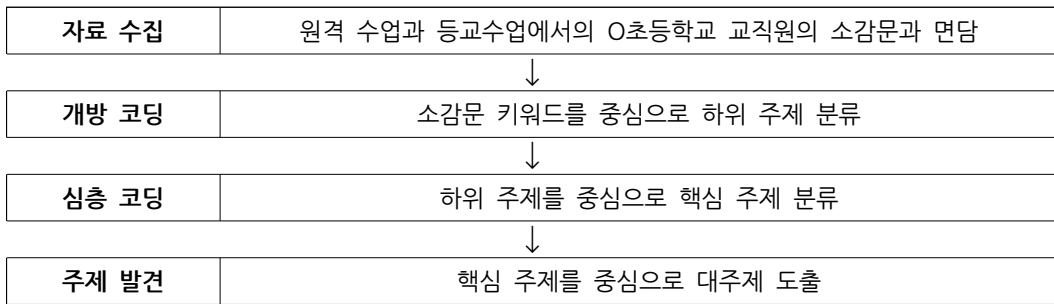
본 연구는 O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원격 수업을 운영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들이 겪은 경험의 구조와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질적 연구의 한 영역인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들은 Giorgi의 심리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론(Giorgi, A, 1997)에 따라 다음 단계를 거쳐 분석되었다.

첫째, 수집된 자료를 꼼꼼하게 반복적으로 읽고 전체적인 중심 내용을 파악하였다. 정상원과

김영천(2014)은 현상학적 연구에 있어서 분석의 주요한 도구는 자료의 반복적 읽기와 성찰이란 바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충분히 읽고 연구 참여자의 언어를 이해하여 전체적인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했다.

둘째, 개방 코딩과 심층 코딩을 진행했다. 원격 수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O초등학교 교직원들의 경험을 의미 단위로 구분했다. 1번부터 고유번호를 부여한 뒤 키워드를 표시하고, 반복되거나 서로 관련 있는 내용을 연관 짓고 이를 의미 단위로 하여 개방 코딩을 진행했다. 그 다음, 개방 코딩 자료의 내용을 좀 더 심화된 하위 주제, 핵심주제, 대주제로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를 범주화하는 심층 코딩을 진행하였다.

셋째, 비슷한 의미 단위를 묶어 하위 주제를 도출하고 범주화 과정을 반복하여 핵심주제와 대주제를 차례로 도출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5개의 대주제, 10개의 핵심주제, 15개의 하위 주제가 선정되었다. 분석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질적 자료 분석 과정

이러한 분석 과정은 소감문과 면담 자료를 읽어가며 <표3>과 같은 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표 3> 자료 범주화 과정 예시

키워드	하위주제	핵심 주제	대 주제
원격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4월 16일 이후에는 클래스팅에 당일 수업 내용 개시, 학생 출석체크, 학생 수업 과제 제출, 수업 피드백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족한 부분은 카톡 단체방을 통해 안내했음을 알 수 있었다.(연구 참여자 T10, 소감문)	클래스팅 기반 과제형 수업 진행	원격 수업 운영 방식	원격 수업 도입
우리 교실은 원격 수업 초기부터 쌍방향성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초기에는 줌을 정착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시간 맞춰 한 번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것, 수업 자료를 매끄럽게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었다. 그래서 초반에는	줌 활용 쌍방향 수업		

주 2회 정도 진행을 했었다. 점점 횟수를 늘려가면서 나 스스로도 소회의실을 연다거나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다보니 아이들도 쌍방향 수업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서 하루에 1~2차시는 쌍방향 수업으로 운영하였다. (연구 참여자 T13, 소감문)			
실시간 줌 수업을 위주로 진행했음. 콘텐츠를 제작도 해 봤지만 교사가 들인 노력에 비해 학생 배움이 줌보다 덜하다는 것을 알게 됨.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작하지 않음. (연구 참여자 T7, 소감문)	콘텐츠 제작의 축소		
1학기에는 각 학생 수준에 맞도록 개별화된 워크북을 제작하여 DIY 키트 등을 담은 학습꾸러미를 배부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 T20, 소감문)	학습자료 제작		

II. 원격 수업의 도입과 운영

1. 원격 수업 도입

○초등학교 교사들이 원격 수업을 전격 도입하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자. 원격 수업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이다. 쌍방향 실시간 수업, 단방향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형 수업으로 나뉘며 교사에 따라 2가지 이상의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 여건을 고려하여 원격 수업 방안을 마련해야한다.⁵⁾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⁶⁾의 면담과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이례적인 것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원격 수업 시행 시기나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협의한 후 그 시기를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초등학교가 자발적으로 원격 수업 운영 방법을 조율하고 결정했다는 것은 놀랍도록 빠른 대처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뿐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빨리 시작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은 학생들이 잘 돌봄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5)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 수업의 현장 안착 대책, 보도자료 (2020.03.31.)

6) 교사란 직업의 분류로서 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모든 교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함.

참여자 T7, 소감문)⁷⁾

가. 원격 수업 시행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협의하고 발빠르게 원격 수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새삼 놀랍다. 원격 수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와 관련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교사들은 개학 전인 3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와 상담을 진행하고 소통했고 4월 16일 온라인 개학을 추진한 교육부 방침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교사가 원격 수업을 실천하고 있었다.

<표 4> 원격 수업 시행 시기 및 이유

연구 참여자		원격 수업 시행 시기	원격 수업 시행 시기 이유 ⁸⁾
참여자	담임 유무		
T4	담임	2020.04.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 수업 시행
T5	비담임	2020.04.	전담으로서 원격 수업 시작
T6	담임	2020.03.	코로나 19로 인해 학기 시작이 연기되면서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
T7	담임	2020.03.	저뿐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빨리 시작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은 학생들이 잘 돌봄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오래갈 것으로 생각했고, 새 학기가 바로 시작되지 않음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반 아이들 생활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우리 반만 상담을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업무 담당자로서 3월 둘째 주부터 학부모, 학생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저의 원격 수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T8	담임	2020.3.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3월부터 학생들에게 클래스팅 가입 유도하고, 온라인 개학 전에는 '바로학교'를 활용하였으나 온라인 개학일부터는 자체 제작 및 ZOOM을 활용한 수업 활용
T9	담임	2020.03.	3월 새 학년이 시작되었지만,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아쉽고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궁금함도 생겼고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니 불안함도 있었음. 교내 다른 학년에서 먼저 클래스팅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학급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동의하여서 시행하게 됨.
T10	담임	2020.04.	코로나 상황
T11	담임	2020.04.	1학기 개학
T12	담임	2020.04.	온라인 개학과 함께 시작

7) 연구 참여 교직원들의 소감문이나 인터뷰 내용은 방대해서 선별해서 인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 참고를 위해서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자 한다.

T13	담임	2020.04.	코로나 19로 인하여 등교 및 대면 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격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학교 교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원격 수업 자료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방향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였다.
T14	담임	2020.04.	원격 수업 전격 시행으로 인하여
T15	담임	2020.03.	본교 선배 선생님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 기간이 길어지거나 학습환경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여 학부모, 학생 상담을 독려하였고 그 이후 교사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시각을 갖게 됨. 등교는 하지 않았지만, 담임이 있고 학교로서 존재감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T16	비담임	2020.04.	코로나로 인한 학생 영상 수업 시행
T17	비담임	2020.05.	코로나 19 관련 보건 수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기존에 계획했던 수업이 자꾸 미뤄지게 되면서 등교 이후 수업을 한 번에 몰아서 해야 하는 압박감 등
T20	비담임	2020.04.	온라인 개학
T21	비담임	2020.05.	협력자로서 담임교사 요청에 따라 시행

나. 원격 수업 운영 방식

수업을 실제로 진행한 연구 참여자 교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원격 수업을 했는지 묻은 결과는 <표 5>과 같다. 소감문 19개를 분석한 결과, 19명의 교사 중 2명의 교사는 원격 수업 기간에 수업하지 않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17명의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13명의 교사가 원격 수업 플랫폼으로 클래스팅과 카카오톡을 사용하였다. 이는 76.5%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교사가 직접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한 수업도 11명(64.7%)으로 외부에서 제작한 영상 활용 수업(47.1%)보다 높았다. 더욱 주목할 것은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76.5%라는 것이다.⁹⁾ 이는 백병부, 정재엽(2020)이 ‘등교수업 한 달, 학교는 무엇이 달라졌나?’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교사 28,4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 5.5%에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주목을 요한다.¹⁰⁾

‘쌍방향 실시간 수업의 확대’를 권장하기 전부터 O초등학교 교사들이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76.5%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율성에 기반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성공적 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 교사들은 원격 수업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는데 팬데믹 위기 상황에 빛을 발했다 하겠다. 코로나 19가 초래한 교육 위기를 쌍방향 수업으로

8) 소감문의 내용은 그대로 옮겨서 용어를 통일하지 않음.

9)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란 zoom(줌), 구글 meet, 팀즈 meeting등을 이용해서 학생과 실시간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함.

10) 백병부, 정재엽(2020.08.28.) ‘등교수업 한 달, 학교는 무엇이 달라졌나?’ 경기도교육연구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표 5〉 원격 수업 운영 방식

단위: %(명)

원격 수업 운영 방식	원격 수업 플랫폼 ¹¹⁾	워크북 제작	'바로 학교'	외부영상 제공 ¹²⁾	교사 자체 제작 ¹³⁾	쌍방향 실시간	기타	합계
빈도수(명)	13	2	4	8	11	13	구글폼	17
구성비율(%)	76.5	11.8	23.5	47.1	64.7	76.5		

연구 참여자의 원격 수업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원격 수업의 경험이 있는 17명의 교사 중 담임교사와 전담 교과 교사 14명이 3개 이상의 원격 수업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비교과 담당 교사들도 '바로학교' 혹은 외부영상 제공에 의존하기 보다 자체 제작한 자료를 활용한 쌍방향 실시간 방법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했다.

〈표 6〉 연구 참여자의 원격 수업 운영 방식

단위: 명

연구 참여자		온라인 플랫폼	워크북 제작	바로 학교	외부영상 제공	교사자체 제작	쌍방향 실시간	기타
참여자	담임유무							
T4	담임	○		○				
T5	비담임	○				○	○	
T6	담임	○	○	○				
T7	담임	○			○	○	○	
T8	담임	○				○	○	구글폼활용
T9	담임	○		○			○	
T10	담임	○			○	○	○	
T11	담임	○			○	○	○	
T12	담임	○		○	○	○	○	백믹스, 클로버더빙
T13	담임	○				○	○	

- 11) 원격 수업 플랫폼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의미는 다양한 수업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O초등학교는 '클래스팅을 기반으로 모든 원격수업 수업을 진행했지만, 소감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생략함을 원칙으로 함.
- 12) 외부영상이란 에듀넷에서 제공하는 영상, 유튜브, 디지털 교과서, 교과서 부록 USB 혹은 CD를 의미함.
- 13) 교사 자체 제작이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활용한 녹화,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한 동영상 제작, 사진을 활용한 자료 제작, 교사가 직접 녹음 녹화하는 등 직접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함.

T14	담임	○			○	○	○	
T15	담임	○			○	○	○	
T16	비담임	○			○		○	
T17	비담임					○		
T20	비담임	○	○		○	○	○	
T21	비담임				○	-○		
T22	비담임						○	

소감문과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O초등학교 원격 수업은 3가지의 특징을 나타냈다. 첫째, 다양한 방식의 수업 운영이다. 전 학년이 온라인 플랫폼 중 클래스팅과 카카오톡을 사용해 다채롭게 수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원격 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혼란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다. 둘째,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다. 원격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전개했다. 셋째, 학년별 교육과정과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원격 수업 방식을 운영했다. 학년별 협의를 통해서 학년별 교육과정과 학생의 특성에 맞게 방식을 선택한 것이 주효했다.¹⁴⁾

2. 원격 수업 경험

지금부터는 O초등학교 교사의 원격 수업 경험을 살펴보기로 한다. 초기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과 전략을 사용했는지 소감문과 면담 내용을 분석해서 기술해 보고자 한다.

가. 어려웠던 측면

대면 수업과 달리 원격 수업은 온라인 상황에서 구현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고경력 교사들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저경력 교사들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것을 수업에 활용하는데 곤란을 겪었다. 더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기대만큼 부족해서 자존감도 하락하였다. 설상가상 대면

14) 교육부는 원격 수업 방식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교사와 학생이 화상 연결로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EBS 콘텐츠나 녹화한 강의를 보는 ‘콘텐츠 활용형’, 과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형’이 그것이다. (교육부, 2020. 3. 31)

수업과 마찬가지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배움을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원격 수업에 맞게 구현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곤경에 직면했다. 학생들의 학습을 안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력 격차에 대한 해결책도 고민해야 했다.

1) 새로운 기술 습득 및 사용

원격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초기에는 기기마련이 여의치 않았고 따라서 그것을 활용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어쩔 수 없이 초창기에는 콘텐츠를 이용한 과제 제시형 수업을 시작했다. 이후 원격 수업이 장기화될 것임을 인지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익혀 사용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줌 깔고 해 보니까 초반에는 좀 애를 먹었죠. 기계를 모르니까 핸드폰으로 보면 말하는 사람 얼굴이 동그랗게 나오고 그렇게 애들 얼굴이 동시에 안 보이잖아요. 컴퓨터로 하니가 좋네. 노트북으로 했었어요. 저는 캠이 없어서 못 하다가 막상 실물화상기 해서 그렇게 해 보니까 훨씬 좋고 실제로 해 보니까(연구 참여자 T13, 면담 2020.12.01.)

그나마 O초등학교는 웹캠, 거치대, 서브 모니터, 마이크, 판서용 태블릿 등의 원격 수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다행이었다. 다만 초기에는 기자재의 기능과 사용법, 성능을 잘 알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특히 고경력 교사인 경우, 수업 방법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으나 기자재 활용능력이 떨어져 계획대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원격 수업의 질이 교사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했다.(연구 참여자 T10, 소감문)

다양하게 수업을 구현하고 싶어도 기자재를 다루거나 프로그램 사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했고, 수업을 어떻게 해 보고 싶다는 의지와 내용 면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기술적인 면이 받쳐주지 못해 어려웠음. (연구 참여자 T7, 소감문)

이외에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았다. 기자재를 소유하지 못한 학생, 기기 사용이 어려운 저학년 학생들의 사용법 지도, 맞벌이 가정의 학생지도 등의 현실적 상황이 그것이다. 부담감 역시 자존감 하락을 부르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T6, T9 소감문) 이에 따라 교사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감하기도 했다. 학교 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동학년 및 학년군 교사들의 소통과 협의만으로는 원격 수업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주변의 학교 교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원격 수업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학년 네이버 밴드, 인디스쿨 등에서도 자료 공유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비교과 담임들도 있었다.(연구 참여자 T20, 면담 2020.12.17.)

2) 수업 측면

가) 교육과정 재구성

어느 정도 원격 수업이 안정화되면서 O초등학교 교사들은 대면수업에서 가능했던 교육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례가 없어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원격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예상되는 교육격차에 대한 고민이 컸다. 과연 온라인으로 학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힘들게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교육 현장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막상 원격학습 초반 영상을 제작해보니 그런 철학을 가진 나조차도 짧은 시간에 학생들에게 지식을 강의식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재구성한 교육과정을 온라인기반으로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 T15, 소감문)

나) 학력 격차

원격 수업은 저학년의 경우, 학생이 수업 시간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지도해야 한다. 어떤 가정환경에서 학습하느냐에 따라 학력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O초등학교 교사들의 소감문이나 면담 내용에서도 학력 격차에 대한 불안을 원격 수업의 어려움으로 제시한 바 있다.(연구 참여자 T6, 면담 2020.11.26./T9, 면담 2021.1.6.) 대면 수업의 경우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학습 중에 발생하는 돌발적 상황도 적절하게 조치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연구 참여자 T20, 면담 2020.12. 17/T7, 소감문/T15, 면담 2020.10.16.)

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가 어려웠습니다. 대면 수업 시에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도를 할 수 있지만, 원격 수업의 특성상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어렵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과제를 지속해서 해오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T12, 소감문)

다) 수업 참여 지도

온라인 수업에 적절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해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저조하면 의미있는 수업 전개가 어렵다. O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원격 수업에는 참석했으나 학습 자체에서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연출됐다. 온라인 수업공간에는 있지만, 게임, 채팅, 영상보기, 음악 듣기 등을 즐기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상 밖으로 대면수업보다 다양한 형태로 빈번하게 학습 불참여 발생했다.(연구 참여자 T13, 면담 2020.12.01./T13, 면담 2020.12.01./T16, 소감문/ T22, 소감문)

아이들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해서 어려웠다. 아이들이 원격 수업이 처음이다 보니 쌍방향 수업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 제 시간에 ZOOM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다 들어오게 하는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아이들 학습 환경 조성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과제 제시에도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더 자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었다. 피드백을 제공해도 피드백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활동적인 모둠 활동을 못 한다는 것도 어려웠다. 영상 제공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해결하기 가장 어려웠다. (연구 참여자 T14, 소감문)

이처럼 원격 수업은 학습 가능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가족 구성원이 부재해서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연구 참여자 T9, 면담 2021.1.6./T10, 면담 2020.12.14.) 혹은 보호자가 학습을 지원하는 것에 둔감하고 학생 또한 학습 의지가 없어서 교사가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사례도 발견된다.(연구 참여자 T10, 소감문)

남학생 한 명은 주중에 아무도 없어요. 집에 아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엄청 노령의 할머니셔서 뭐 그런 것 챙기는 거를 잘하지 못하시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아버지는 낮에 일하러 나가시고 네 애가 보살핌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은 제가 전화하고 뭐 해라 해도 잘 안 하고 처음에는 잘 따라오다가 마지막 되니까 자기도 늦잠 자고 이렇게 잘 보살핌이 안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T20, 면담 2020.12.17.)

라) 학생 생활지도

전술한 것처럼 교사와 학생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 수업은 어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학기초 교사와 학생의 라포형성이 한 해의 수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온라인 개학 초기,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 방법을 많이 고민했다.(연구 참여자 T8, 소감문/T20, 면담 2020.12.17./연구 참여자 T7, 소감문)

3월은 학생들과 만나 라포를 형성하고 학급 규칙을 정하는 등 일 년의 틀을 다지는 기간인데 올해는 그러지 못했다. 라포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로 처음 목소리를 들었고 카카오톡, 클래스팅으로 짧은 인사와 학습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교사의 역할이 수업에만 있는 게 아닌데 정작 수업도 학급경영도 상담도 낮은 환경에서 어떻게 이뤄내야 할지, 이게 맞는지에 대한 막막함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 T15, 소감문)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워 생활교육에도 차질을 빚었다. 등교수업의 경우 정규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그런데 원격 수업의 경우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수업 지장까지 초래하였는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도 온전히 교사의 몫이었다. 이외에도 원격 수업을 준비하는 최소한의 예의, 즉 옷차림과 자세 그리고 태도 등을 가르쳐야 했다.(연구 참여자 T13, 면담 2020.12.01./T16, 면담 2020.12.18.)

마) 정책 결정에서의 배제

갑작스럽게 시행된 원격 수업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 전술한 것처럼 교사들은 학생 출결 확인 및 수업 참여 독려, 수업 준비 부담, 수업저작권 우려, 새로운 기술 학습 부담, 원격 수업 인프라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와중에 교육당국의 빈번한 지침과 보고서 제출요구는 교사들의 피로도를 가중시켰다. 교육부의 지침이 변경되면 단위 학교는 애초의 교육계획 전체를 수정해야 했다. 원격 수업 계획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서 제출을 요구받으면 학교의 수업 계획을 서둘러 재수립하는 등 수업 외 다양한 업무로 곤란을 겪었다. 교사들은 정책에서 배제됐고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긴급한 상황이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중요 내용이 결정되면서 학교는 그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세워야 하는 혼란”(연구 참여자 T6, 소감문)이 가중됐던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연구 참여자 T13, 소감문/ T9, 면담 2021.1.6./T20, 소감문/ T16, 소감문)

원격 수업 기간 교사들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다.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었다. 그 결정도 뉴스 보도를 통해 더 빨리 접했다. 교사들과 협의할 방법이 정말 없었나? 보도자료를 먼저 내보내면 그에 맞춰가려고 교사들은 급급했다. (중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교사들만 탓할 수 있을까. (중략) 교육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후에도 된다면 일방적으로 내리 먹이기식이 아니라 교사들과 충분한 소통 속에서 교육에 대한 방향을 가져갔으면 한다. (연구 참여자 T9, 소감문)

3. 교사의 극복 전략

지금까지 O초등학교 교사들의 원격 수업 실재를 소개했다. 지금부터는 원격 수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O초등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원격 수업은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찬규와 박성근(2013)은 그것을 핵심적인 요소로 밝힌 바 있다. 방대하고 산만한 정보와 지식을 적절히 선택하고 이를 구별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획자, 관리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됐기 때문이다.¹⁵⁾ O초등학교 교사들은 변화된 교육적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 학교 자체 연수, 학교 외부 연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역량을 강화하였다. 기술적 이해와 수행, 콘텐츠 공동 제작 및 자료공유, 학생 학습과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협조하며 함께 난국을 타개해 나갔다. 이외에 리더 교사의 열정과 헌신, 혁신 학교 문화, 학부모 협조, 관리자의 신뢰가 뒷받침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가. 연수

원격 수업 시행 초기, 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개념과 방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의 기술적 구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부장들 중심으로 영상 제작 및 녹화법, 줌 사용법 등 연수를 계획하여 실행했다. 교원들도 학교에 자체 연수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참여하여 개인의 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연구 참여자 T17, 소감문/T12, 면담 2020.11.05./T7, 소감문) 이런 노력 끝에, “직접 영상 자료도 제작하여 활용하고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 쌍방향 수업으로의 변환을 가져왔다”(연구 참여자 T1, 소감문)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15) 민찬규, 박성근.(2013) 영어과 교사교육의 회고와 전망, 영어교육, 68(2), 153-177.

우선 수업 고민보다 업무 담당자로서의 고민이 컸습니다. (중략) 개학을 앞두고 업무 담당자로서 선생님들과 유튜브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영상 제작이나 실시간 수업 방식을 시연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원격 수업의 여러 방법을 학년별로 논의하고 원격 수업의 방식을 정하여 원격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 T5, 소감문)

이외에도 학교 연수에서 부족한 측면은 외부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했다.(연구 참여자 T8, 소감문/ T20, 소감문) “학교 자체 연수 외에도 외부 연수에 참여하며 나름 돌파구를 마련했다. 인터넷 교육 카페나 유튜브, 초등교사 커뮤니티, 학교 밖 교사 모임을 통한 방법이 그것이다. 연수를 통해서 수업 자료 제작방법을 익히려고 노력했다. 미리캔버스와 클로바 더빙 기술 등을 배우고 익히며 어려움을 극복해 갔다.”(연구 참여자 T3, 면담, 2020.12.1.)는 사례는 교사들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잘 보여준다.

나. 전문학습 공동체 운영

경력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원격 수업의 초기 많은 교사들이 당황했으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동료 교사 간의 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 백병부(2020) 역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비롯한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로 인해서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문화는 훨씬 공고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¹⁶⁾ O초등학교 교사들은 매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이 활동이 원격 수업 진행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자평했다. (연구 참여자 T7, 소감문)

실제 우리학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체계적으로 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주제도 일주일 동안 수업을 돌아보던지 원격학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소통의 장이 있어서 원격 수업의 어려운 점을 좀 더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만들어진 소통의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편했고(중략) (연구 참여자 T13, 면담 2020.12.01.)

교사들은 기술적 측면 외에 콘텐츠 공동 제작 및 자료 공유, 학생 학습지도 및 생활교육, 업무적인 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다.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의견도 발견할 수 있었다.

16) Lortie(1975)는 개인주의, 보수주의, 현재주의가 교육 변화와 학교 개선 노력을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장애물이라고 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각자 자기 교실에 머무르며 생활하기 때문에 교사 개인주의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위기로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협력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웠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사건이라 하겠다.

이는 기술적 측면과 학생생활교육 그리고 업무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기술적인 측면

원격 수업 초기 가장 서로에게 큰 도움은 수업에 필요한 기기를 활용하고 다루는 기술을 공유했다는 사실이다. 원격 수업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을 동료 교사들에게 알려주고 서로 배우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예를 들면, “교사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 동료교사들과 공유하는 협력적인 분위기였음.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동학년 및 주변 교사와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학교에서도 원격 수업에 필요한 기기 및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른 학교에 비해 원격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연구 참여자 T6, 소감문) 소개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연구 참여자 T16, 소감문) ○초등학교는 “교직원들이 먼저 줌이나 클래스팅이나 여러 가지를 제안하였고 그에 좋은 점들을 서로 배워나갈 수 있어서 좋았다.” (연구 참여자 T9, 소감문)는 사례가 차고 넘쳐서 인용하기 어려울 정도이다.(연구 참여자 T17, 소감문 /T10, 면담 2020.12.14.)

누구라고 할 필요도 없이 솔선수범하며 서로 격려했다. 예를 들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는 행운부장님께서 직접 연수를 해주셔서 쉽고 간편하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화려한 영상 제작, 편집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구현하기에 교사가 가장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시연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웠다. 당시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문제도 부각되었는데 정보를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알려주신 동료 교사들 덕분에 부담 없이 원격학습 판에 뛰어 들 수 있었던 것 같다.”(연구 참여자 T15, 소감문)는 것에서 건강한 학교 문화를 엿보게 된다.

전담교사 뿐만 아니라 스포츠 강사, 보건교사가 함께 교육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거나 제작한 자료를 함께 공유하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갔다. 자료를 단순히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 상황에 맞게 재수정, 재제작을 하면서 더욱 더 자료의 질이 향상됐다. 나아가 원격 수업에 적합한 교과서 재구성, 나아가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원격 수업에 필요한 쌍방향 실시간 수업 기술 습득, 콘텐츠 제작, 스마트기기 및 앱 활용하기, 아이패드 기능 익히기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헌신했다.(연구 참여자 T6, 소감문/T9, 소감문/T8, 소감문/T8, 면담 2020.11.19./T5, 소감문/T12, 소감문/T15, 소감문/T8, 면담 2020.11.19.) 더구나 교사 뿐만 아니라, “관리자 분들과 여러 선생님들과

교직원 분들이 최대한 지원해주시려고 애써주셔서 장비도 많이 늘어 훨씬 수월해” (연구 참여자 T10, 2020.12.14.)겠다는 소감은 교육 공동체가 합심해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연구 참여자 T7, 소감문/T15, 면담 2020.10.16.)

2) 학생 학습지도 및 생활교육

한편, 원격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O초등학교 교사들이 수업과 학습 자료 콘텐츠를 제작할 뿐만 아니라, 학년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 학습꾸러미 배부, 학급행사 운영, 학급 단톡방 운영 등 학생 학습 지도 및 생활교육을 활발하게 협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사례 역시 차고 넘칠 정도로 방대하다. 특히 초임교사들은 선배 교사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 “신규발령이라 학습 측면, 생활교육 측면에서 어려운 점을 많이 겪었는데 동료 교사원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좋았다. 수업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어떤 수업은 어떻게 제작하자, 어떤 방식을 활용하자 같이 토의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자료를 찾음에 있어서 같이 공유하여 보니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T14, 소감문)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이외에도 여기서 제시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사례를 만나게 된다.(연구 참여자 T9, 면담 2021.1.6./T14, 면담 2020.12.18./T15, 소감문/T15, 면담 2020.10.16.)

이 역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학년 협의 문화가 활성화되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 역시 인용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1, 2학년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했는데 그거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수준이 비슷하고 동화책 위주로 하니까 그거는 진짜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게임 위주로도 알려주시고 애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연구 참여자 T20, 면담 2020.12.17.)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분 좋은 소감 등이 그것이다. (연구 참여자 T15, 소감문/T6, 면담 2020.10.26.)

3) 업무 협조

학교는 수업과 생활교육을 중심에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 O초등학교는 업무협의로 성공적이었다.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자료를 공유했듯이 등교 수업에서도 비담임과 행정직, 교육공무직들이 함께 협력해서 난국을 타개해 나갔다. 이 역시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보건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셔서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어쨌든 그래서 보건 선생님과 자주 상의를 했다”(연구 참여자 T3, 면담 2020.12.22.)는 사례가 그것이다.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심리적 위안을 받아 원격 수업을 진행했다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원격 수업에 대한 혼란과 두려움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 혁신학교 문화

1) 리더 교사의 열정과 헌신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O초등학교의 문화는 대단히 건설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지하다시피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긍정적 에너지가 가져온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들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은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리더 교사들의 솔선수범에서 가능했다 하겠다. O초등학교의 리더 교사는 동학년 교사들 뿐만 아니라 경력 교사와 저경력 교사의 자연스러운 협력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헌신했다. O초등학교 교사들이 리더 교사의 열정과 헌신을 고평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작년까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교사 전체 구성원으로 진행하다 보니 구체적인 교육과정이나 수업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학년(군)별로 진행한 것이 서로 수업 준비에 도움이 되었고,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 교사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연구 참여자 T5, 면담 2020.10.11.)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가진 리더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리더 교사는 수업, 생활교육, 업무에서 동료 교사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것은 물론 학생의 배움과 성장까지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리더 교사는 열정을 가지고 학교 일에 헌신했고, 영상 자료 제작이나 쌍방향 수업을 다양하게 시도했고 그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빈번한 예는, “O초등학교에서는 부장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서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이 따라 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장하려고 하면서 일 안 하려고 떠넘기면 하기 싫었거든요. 자기는 안 하면서 근데 여기는 부장 선생님들이 일도 많이 하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방과 후 부장님도 그렇고 생활부장님도 그렇고 그러는 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보면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연구 참여자 T8,

면담 2020.11.19.)했다는 것에서 잘 확인하게 된다. 이런 사례 역시 많이 발견된다.(연구 참여자 T3, 소감문/T3 면담, 2020.12.22./T1, 면담 2021.01.05.)

2) 학생의 배움과 성장

반복하지만 O초등학교의 원격 수업 성공 요인은 학교의 혁신문화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혁신 교육은 모든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학생 중심 교육을 추구한다. 모든 학생이 각자의 배움을 경험하여 성장해서 자신의 꿈을 찾아가도록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성장보다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성장에서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혁신학교 문화인 것이다. 연구 참여자도 이점을 언급하였다. (연구 참여자 T20, 면담 2020.12.17./T3, 면담 2020.12.22)

왜 이렇게 생각했냐고 보니까 뭐가 아이들한테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이 좋아할까. 흥미 있어 할까. 그런 생각을 해준 게 이 학교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행복씨앗학교라서 그런지, 선생님들의 성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행복씨앗학교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선생님들 성향 일 수도 있겠지요. (연구 참여자 T13, 면담 2020.12.01.)

O초등학교의 학교 문화는 전체적인 방향성이 항상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초점을 두었다. 다양한 수업을 시도하는 자율성을 존중했다. 특히, 학년간, 학년군간을 연계했으나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았다. 동료에게 서로 배우고 익히는 공동연구 및 공동 실천 문화, 협의와 협력이 가능한 학교 구조, 열정과 자발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문화, 허용적 분위기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저는 O초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구성원 선생님들이 자랑스럽고 멋졌다는 생각이”(연구 참여자 T6, 면담 2020.10.26./T8, 면담 2020.11.19.)들 정도로 긍정적인 평이 대부분이다. (T13, 면담 2020.12.01./T3, 면담 2020.12.22./T12, 면담 2020.11.05./T10, 면담 2020.12.14./T1, 면담 2021.01.05.)

3) 학부모 협조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도 주목할 만 하다. 학생 상담, 놀이 위주의 활동, 학생들의 생활 태도 점검, 학생 단톡방 운영 등등. O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 받았다.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서 가정 방문, 학부모 상담, 학부모 단톡방 운영, 보이스톡, 문자 및 전화 통화 등으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 것 역시 강조할 만 하다. (연구 참여자 T14, 소감문/T15, 면담 2020.10.06./ T7, 소감문/T10, 면담 2020.12.14./T4, 소감문)

학생들에게 클래스팅, 줌 어플을 설치하기 위해 끈질기게 학생들과 전화하고 보호자와 협력하려고 했다. 할머니와 지내는 어린이는 상담 겸 직접 가정을 방문하기도 했다. (중략) 어려운 것이 있으면 늦게라도 보이스톡, 전화, 문자 등 시간 가리지 않고 받았다. (연구 참여자 T15, 소감문)

원격 수업 역시 대면 수업의 경우처럼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맞춰 학습한다. 그러므로 학생이 잘 모르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격 수업에서는 교사가 즉각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내용에 대해 피드백하기 어렵다. 그래서 원격 수업은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보호자들은 출석 뿐만 아니라 교사가 배부한 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고 학습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언해야 한다. 그런데 각 가정에서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지역의 아동센터나 마을주민을 도움을 받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T12, 소감문/T12, 면담 2020.11.05./ T16, 소감문/ T7, 소감문)

4) 관리자의 신뢰

송기상, 김성천(2019)에 의하면 ‘코로나 19사태에 잘 대응한 학교를 보면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학교의 비전과 철학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져 있으며, 수업·교육과정·평가에 대한 개방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 민주주의가 작동하였고, 변혁적 리더십이 발현되고 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¹⁷⁾ ○초등학교 역시, 특히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관리자가 있었기에 성공적인 원격 수업이 가능했다.

○초등학교 관리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격려, 관심, 방향성 제시, 책임감, 부드러운 리더십, 믿음, 심리적·환경적·물리적 지원을 들 수 있다. 그 만큼 교사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고, 교직원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던 것이다. 관리자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에 일언반구를 안 했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옳다. 내가 가끔가다 생각을 해봐도 우리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많이 느꼈” (연구 참여자 T1, 면담 2021.01.05.)을 정도로 교사를 신뢰

17) 송기상, 김성천(2019). 미래교육,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살림터.

했고 교사들 역시 관리자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에 감사했다.

교감 선생님께서 교사를 믿어주시면서 격려해주셨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셨습니다. 특히 저랑 많은 협의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과감히 추진해야 할 때는 책임을 지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교사들을 믿어 주셨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은 무관심하지도 않은 부드러운 개입이 있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T5, 면담 2020.10.11.)

4. 원격 수업의 의의와 가치

○초등학교 교사들은 원격 수업으로 새로운 수업을 경험했고 수업 전문성이 향상되었다고 고백했다. 학년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등교수업 상황과 다른 경로로 학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부모와의 소통을 보다 충실히 수행했다. 나이가 교직원 간 소통과 협력, 신뢰를 증대해서 리더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발견하기도 했다. 지금부터는 원격 수업의 의의와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하겠다.

가. 수업 전문성 향상

획일성과 경직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 체제와 입시 위주 교육 상황에서 교원과 학생들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래로부터의 총체적인 혁신을 표방하면서 학교 혁신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혁신학교 운동이 끊임없이 진행되었음에도 학교는 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원격 수업은 교사들에게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엔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수업 내용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수업 내용만이 아니라 원격 수업 안에서의 구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했기 때문이다.

교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학급에 맞는 수업 방법을 선택했다. 거꾸로 수업을 원격 수업의 환경에 적합하게 실행한다든지, 학생들의 배움과 학습을 우선에 두고 교사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 수업에 활용했고, 줌을 활용한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준비하면서 수업 전문성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연구 참여자 T12, 2020.11.05.)

교사로서 전문성에 대해 고민하고 교과 연구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갔던 시기와 원격 수업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맞물리면서 원격 수업이 큰 전환점이 되어 교육과정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는 자세를 갖추 수 있게 되었다. 거꾸로 교실과 같이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도전해 보고 싶었으나 어렵다고 느껴서 실천하지 못했는데 원격 수업을 준비하며 거꾸로 교실과 같은 수업을 쉽게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 참여자 T13, 소감문)

원격 수업은 교사 전문성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O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의 배움과 학습을 중심에 놓고 수업 준비나 수업 목적, 방법이 무엇인지 성찰했다. 교사들은 연수를 찾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숙지해서 기술을 익히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노력했다. 열심히 고민하고 준비한 원격 수업이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과 태도를 이끌어 교사 수업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한다.(연구 참여자 T13, 면담 2020.12.01./T20, 소감문/T6, 면담 2020.11.26./T20, 면담 2020.12.17.)

나. 리더 교사로 성장

원격 수업의 초기 처음 발령받은 새내기 교사의 혼란은 더욱 컸다. 그런데 이 위기는 리더 교사의 도움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 리더 교사와 함께 학년군별, 학년별로 협의와 소통하며 학년 특징과 학생 수준에 맞는 원격 수업 방식, 내용을 선택하고 운영하며 점차 안정됐다.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제안하고 실천한 리더 교사의 숭선수범에 공감했고 장차 리더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연구 참여자 T13, 면담 2020.12.01./T13, 면담 2020.12.01.)

다. 학생 이해 증대

원격 수업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참여를 이끄는 것이 관건이다. 교사가 수업을 디자인하고 적절한 원격 수업 방식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이해와 공감에 기대지 않으면 의미있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O초등학교 교사들은 먼저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디자인했고 학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연구 참여자 T13, 면담 2020.12.01.)

성향이 너무 달라서 제가 아무리 좋은 자료를 써도 애들이 안 들어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참여시킬까,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처음에는 줌 들어오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줌 활용 게임을 많이 동기 유발 식으로

요즘에 마피아 그런 것, 내일은 좀 하기 전에 마피아를 해 볼 거야, 하고 수업하다가도 하고, 수업 시간이 끝났는데도 선생님 또 해요.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연구 참여자 T13, 면담 2020.12.01.)

나아가 학생의 배움을 성장시키려면 교사와 보호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 역시 확인했다. 교육 현장이 학교에서 가정으로 경계없이 넘나들기 때문에 교사는 평소보다 보호자와 더 자주 연락하고 학생의 생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고 받았다. 학교 교육은 학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까지 이어져야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교와 가정에서의 지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연구 참여자 T12, 면담 2020.11.05.)

라. 교사 공동체의 가치

전술한 것처럼 O초등학교 교사들은 원격 수업으로 인해 동료 교사와의 협력이 증대되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동료 교사와의 협의 문화가 이미 정착된 것에서 찾을 수 있었다.(연구 참여자 T4, 소감문/ T7, 소감문)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원격 수업 진행 상황, 원격 수업 시 어려운 점, 수업 기술 등 수시로 협의하고 공유하면서 서로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참여자 T13, 소감문/T11, 소감문/T5, 면담 2020.10.11.)

본교는 학년 군별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그 구성원들과 점심도 같이 먹었다. 식사를 같이하니 더 관계가 친밀해져서 신규 선생님이나 저경력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수월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도 올해 처음 이 학교에 왔지만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주려고 노력했고 학급관리나 상담 등 부장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대신 전달하였다. (연구 참여자 T15, 소감문)

꼭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아니어도 수시로 동학년 교사와 의견을 주고 받으며 좀 더 향상된 원격 수업을 준비했다. 학년별 소통의 구조가 잘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 공유와 협력을 넘어 공동으로 수업을 고민하고 자료 제작을 공동으로 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 모습도 볼 수 있었다.(연구 참여자 T10, 소감문/T10, 면담 2020.12.14./T12, 소감문/) 동학년 교사와의 협력을 넘어 담임과 비담임, 교과와 비교과, 업무 담당자 간의 협력, 행정실과의 협력적 소통 구조를 통해 낯설고 어색했던 원격 수업을 잘 수행했다.(연구 참여자 T5, 소감문/T15, 소감문/T5, 소감문/T16, 소감문)

이처럼 원격 수업에 대해 동료들과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으면서 소통할 기회가 전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 자신들이 아는 것을 기꺼이 이야기하고 공유하려는 모습에서 동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연구 참가자들은 말한다. 대화는 모두 원격 수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희가 학기 초 학년 군별 선생님들이랑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화를 안 하는 게 맞지만, 대화하면 대화의 주제가 원격 수업이었어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수업을 그러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성장해 간다고 생각을” (연구 참여자 T13, 면담 2020.12.01.)하게 만드는 협력 문화가 O초등학교의 최대 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연구 참여자 T6, 면담 2020.11.26./T12, 면담 2020.11.05./T15, 면담 2020.10.16.)

5. 원격 수업 개선 및 지원 방안

코로나 19는 우리가 그동안 상상했던 미래교육의 모습을 실제로 경험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원격 수업을 운영하며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안정을 찾고 의미있는 학습이 진행됐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차후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격 수업 운영 방식이 개선되고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O초등학교 교직원들의 소감문과 면담 자료를 통해 앞으로 원격 수업 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크게 단기적 측면과 중장기적 측면으로 구분했다. 단기적 제안으로 플랫폼 및 앱 개발, 기자재 지원, 체계적인 수업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현실적인 업무지원,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고, 중장기적 으로는 원격 수업 지원 교사 확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단위 학교 자율화, 교육과정 자율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가. 단기적 측면

1) 플랫폼 및 앱 개발

O초등학교 교사들은 원격 수업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플랫폼과 앱을 찾기 위한 노력했고 클래스팅, 플랫폼에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 했다. 줌을 활용해서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전개했다. 그런데 원격 수업의 장기화와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플랫폼과 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클래스팅을 사용하고 콘텐츠를 제작했으나 학습에 적용하기

어려워 e학습터로 플랫폼을 변경했는데 시스템 오류로 활용하지 못했다.(연구 참여자 T14, 면담 2020.12.18.)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용자들의 수준과 욕구에 맞는 플랫폼과 앱이 필요하고,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인 구성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일방적인 수업 제공 방식이 아니라 상호작용 학습이 가능한 학습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원격 수업 시 학생들이 느꼈던 고립감을 최소화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O초등학교 교사들은 특별한 가입 없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내장된 쌍방향 실시간 플랫폼 등을 요구하였다. 학교 자체 인트라넷 구축을 통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 참여자 T6, 소감문/T14, 소감문/T12, 소감문/ T3, 면담 2020.12.22./ T16, 소감문/T5, 소감문/T5, 면담 2020.10.11.)

한편, 원격 수업에서는 저작권 문제, 온라인상의 예절, 정보 활용 교육, 보안 문제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O초등학교 교사들은 원격 수업 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미디어 교육과 저작권 문제, 보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앱 개발 등의 필요함을 언급하였다.(연구 참여자 T14, 소감문)나아가 4차 혁명 시대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자료의 탐색, 수집, 종합, 재구성의 단계를 거치는 정보 활용 교육이 중요하다.” (연구 참여자 T18, 소감문)역설하기도 한다.

2) 기자재 지원

가장 필요한 것이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이다. 각 단위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기자재를 지원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원격 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의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다. 학습에 적합한 스마트기기를 확인하고 지원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를 점검하는 수준에서 지원했기 때문이다. 기자재 활용 유무에 따라 학교별, 교사별 수업의 질이 결정될 수 있다. 대면 수업에 비해서 원격 수업은 기자재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수업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원격 수업의 개선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인력과 시설 지원을 요구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연구 참여자 T26, 소감문)

O초등학교 교직원들은 학생과 교사로 구분해서 기자재 지원을 제안했다. 학생들은 휴대폰을 사용한 줌 수업을 불편해 했고 카톡을 활용해도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장시간 사용하다 보니 건강과 체형의 변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의 요구가

많았다.(연구 참여자 T8, 소감문/T5, 소감문) 이외에도 기자재 사용을 학교에 한정하지 말고 가정에도 장기간 대여하자는 의견도 개진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을 먼저 지원하려는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띈다.(연구 참여자 T3, 면담 2020.12.22./T10, 면담 2020.12.14.)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 학생 등 특수한 환경의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참여하려면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동영상 수업 수강, 문서 작성 등 과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아이들이라면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PC 기기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생략). (연구 참여자 T26, 소감문)

교사도 기자재가 없거나 노후화되어서 원활한 원격 수업을 전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O초등학교 교사들은 노후화된 PC 교체, 원격 수업 시 필요한 장비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수 지원을 요구하였다. 그런 경우 꼭 당사자인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의할 것을 당부하였다.(연구 참여자 T10, 소감문/T15, 소감문/ T2, 소감문/T3, 면담 2020.12.22./T25, 소감문/T3, 소감문)

3) 교육자료 개발

원격 수업 자료 개발이 오롯이 교사의 몫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수업 자료는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각 지역 현장 교사에게 원격 수업에 적합한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배포하고 공유하는 것은 부담이다. O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육부, 교육청 차원에서 수준 높은 다양한 콘텐츠와 수업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교사들에게 연수기회를 부여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연구 참여자 T19, 소감문/T1, 소감문) 이는 저작권 문제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교육자료 개발이 시급한 이유는 저작권에 따른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저작권과 관련된 혼란이 계속되자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학술정보원의 자료를 토대로 ‘저작권 가이드’를 공지했는데, 이는 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원격 수업에 자료를 활용하는데 궁극적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했다.(연구 참여자 T8, 소감문)

아울러 자료의 제작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TF팀을 조직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수업자료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연구 참여자 T16, 소감문)나아가 자료 개발의 다양화를 요구했다. 특히 특수교육과 영어교육 자료는 나이, 학년, 수준, 흥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자료가 개발되고 보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 참여자 T20, 소감문 /T20, 면담 2020.12.17./ T16, 면담 2020.12.18.)

4) 현실적인 업무지원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원격 수업 이전에 주어졌던 업무들이 줄지 않았거나 아예 더 많아진 경우가 발생했다. 가장 많은 사례는,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업무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관련 없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수업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 (연구 참여자 T20, 소감문.T3, 소감문)하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원 확충 및 단위 학교의 일부 업무를 교육청이나 지역사회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연구 참여자 T6, 소감문) 나아가 “지역 간 학습격차를 해소하려는 방안도 여러 방향에서 제시되고 양질의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연구 참여자 T1, 소감문)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현장의 실질적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주길 요구했다. 기기 제공 및 조작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나 교육과정 운영과 연수 등의 지원을 희망했다. 다각적인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이 없어 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연구 참여자 T4, 소감문/T7, 소감문/T15, 소감문) 원격 수업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구 참여자 T3 면담, 2020.12.22. /T20 면담, 2020.12.17.)

나. 중장기적 측면

1) 원격 수업 지원 교사 확보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조작 미숙과 낮은 이해도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저학년 및 일부 고학년 학생들은 스마트기기 조작 미숙으로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습 부진 학생들은 수업 내용에 대해 바로바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없었다. 이런 학생들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지원 교사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다. (연구 참여자 T10, 소감문/ T27, 소감문/ T12, 면담 2020.11.05./T5, 소감문/ T5, 면담 /T15, 면담 2020.10.16./ T1, 면담 2021.01.05.)

2) 학급당 학생수 감축

개별화 교육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원격 수업의 특성상 적절한 학생 수 조절이 필요하다. 원격 수업에서 교사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제한적이다. O초등학교의 경우, 원격 수업이 그나마 원활히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학급당 학생 수이다. 적게는 14명에서 많게는 17명이기 때문이라고 연구 참여자들은 생각했다. (연구 참여자 T6, 소감문/ T13, 소감문) 이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 학생 수가 많다 보면 줌 수업도 힘들다고 들었음. 한 반 적정인원도 어느 수준 이상 초과하지 않게 해야” (연구 참여자 T8, 소감문)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T2, 소감문/ T1, 소감문/ T17, 소감문/) 장차 “학급당 학생 수도 줄어야 하고, 학교 규모도 작아져야 한다.” (연구 참여자 T9, 소감문)는 주장을 낳기도 했다. 그만큼 원격 수업에서 학생 수 감축은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T12, 소감문/ T7, 소감문/ T15, 소감문T15, 면담 2020.10.16./)

3) 교육과정 자율화

미래사회는 핵심역량이 필요하고 이를 기를 수 있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제안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요구하는 또는 그것을 넘어서는 역량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해야한다. 현재 국가 교육과정으로는 그 실현이 어렵다. 학교 특성과 지역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핵심역량을 추출하고 이를 구현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자율화’를 연구 참여자들은 제안하기도 했다.(연구 참여자 T16, 면담 2020.12.018.)

이미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넘어 교육과정을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는데 교육부가 여전히 낮은 철학에 갇혀있어 교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적 경험들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 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유의미한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면 행복한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 (연구 참여자 T2, 소감문)다고 자신한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자율화 혹은

대강화가 필요” 하다는 것, 나아가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습 부담을 줄여 다양한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연구 참여자 T5, 소감문) 이때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자율성-교사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T7, 소감문)

III.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팬데믹 상황 하에서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과제 제안(서나래, 2020) 그리고 교사 협의체 구성을 통한 수업 전문성 향상에 대한 문제제기(이현아, 2017)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O초등학교 교사들의 원격수업 경험사례를 분석했다. O초등학교는 평소 전문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사 전문성 신장은 물론 교육혁신을 위해 매진해 왔다. 따라서 연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O초등학교 교사들은 위기 상황에서 교내 및 교외 연수를 통해 어려움을 타개했고 전문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했다. 그 구체적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주목을 끄는 것은 리더교사의 열정과 헌신이다. 리더교사를 중심으로 교사들은 평소 쌓아 온 신뢰와 믿음으로 원격수업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구축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 학생의 학력에 맞게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생활지도 및 학부모 면담에 이르기까지 전문학습공동체를 구심점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교사협의체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는 기회였다.

O초등학교 교사들은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문하게 됐고 나름 답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 결과 수업 전문성이 향상됐다고 자평했고 리더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도 학생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교사 공동체의 가치가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장차 미래 한국 교육이 당면한 과제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역할을 다짐하기도 했고 교육당국에 몇가지 제언을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O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여러 사례를 비교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다중 사례연구에 비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후 보완해야 할 과제를 남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수업 상에서 학습 구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 그리고 학교 차원의 원격 수업 플랫폼과 기술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하는 학교 관리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했던 교사 외에 수업을 지원하고 격려했던 관리자, 교육공무직, 행정직들의 구체적 경험을 면밀하게

분석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 결과 이 연구가 교사들은 물론 원격 수업을 지원하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관리자, 교육청 관계자, 원격수업 정책입안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요약하고 제언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원격 수업을 실천하는 현장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사들은 O초등학교의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구체적인 과정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교사들의 역할과 활동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성공적인 원격 수업을 위해서 관리자가 교육적 환경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는지, 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최적의 원격 수업 운영은 어떻게 구현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원격 수업의 어려움을 겪는 여러 학교 교사들과 관리자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학생 지도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원격 수업과 등교수업과정에서 O초등학교 교사들의 구체적인 경험 사례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실제적 방법을 고민하는 여러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모두 원격수업 초기 단계에서 당황했으나 교사들의 기지와 노력으로 학생들의 학업 집중도가 향상됐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정적, 물질적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O초등학교 교사들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교 측에 요구했거나 혹은 학교 측에서 지원한 행정적, 물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학교는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O초등학교의 원격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현 교육의 진로를 모색하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고 연구들이 축적돼 한국 교육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점검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미래 교육의 방향과 목적을 어떻게 규정하고 설계해야 할 것인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교육 시스템의 정교한 설계,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서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대한 교육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공유의 아카이브 구축 등 국가적 지원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코로나 19가 초래한 상황은 심각하지만 이를 기점으로 보다 근본적인 교육계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됐다. 현장의 교사들이 연대하고 협력해 공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교와 지역 사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양질의 배움을 제공하도록 노력했다. 교육 당국 역시 개인별, 지역별 학습 격차 등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업의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현재의 교육 과정, 교육 목표, 입시 체제에 대한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면, 진술한 것처럼 미래사회는 핵심역량이 필요하고 이를 기를 수 있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역량을 함양하는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의 국가 교육 과정 하에서는 이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교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학교 특성과 지역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핵심역량을 추출하고 이를 구현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원격 수업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기자재 확보는 물론 지원 교사가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 개개인의 맞춤형 역량을 키울 각종 연수와 교육에 대한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역설적으로 코로나가 야기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미래 교육의 실천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최적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야흐로 교육의 대전환기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미래교육을 위한 국가적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고, 이제 그 구체적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논문 투고일: 2021. 7. 1. ※ 논문 수정일: 2021. 8. 4. ※ 게재 확정일 : 2021. 8. 30.

〈참고문헌〉

- 권형숙(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구조화된 면담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교육정책연구소(2020). **소환된 미래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를 바라보다**. 테크빌교육.
- 김현지(2020). **초등교사의 음악교과 전문성 탐구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 석사과정 파견연수 경험을 중심으로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민찬규, 박성근.(2013) 영어과 교사교육의 회고와 전망, **영어교육**, 68(2), 153-177.
- 백병부, 정재엽(2020). **등교수업 한 달, 학교는 무엇이 달라졌나?.** 경기도교육연구원.
- 백병부(2020). **코로나 19와 교육: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재)경기도교육원.
- 서나래(2020). **초·중등 영어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심경은(2013). **초록초등학교 교사들의 혁신학교 참여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신서영, 박창연(2020).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8(2) : 147~167.
- 오옥환(2016). **교사 전문성 -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에 대한 논의 -**. 교육과학사.
- 오지수(2020). **원격 수업에서 초등 영어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 :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분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인지(2020). **초등학교 원격 수업에서 특수교사의 경험**.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의재, 제성준, 윤현수(2018).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고등학교 경력 체육교사가 겪는 온라인 수업 실천의 어려움과 극복 전략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 339~362.
- 이준희(2020). **과학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 조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현아(2017).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수준이 교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상원, 김영천.(2014). **질적 연구에서의 현상학적 글쓰기의 전략과 방법의 탐구. 교육문화연구**, 20(3), 5-42.
- 정혜옥(2020).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실태조사와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상술(2004). **초등 체육수업 개선을 위한 질적 사례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홍석희(2017). **전문적학습공동체 공동연구. 연수 이야기**. BOOK.
- Giorgi. A.(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8(2), 235-260.

〈Abstract〉

Experiences and practices of elementary teachers in distance education

Cho, Yonghoon¹, No, Miran², Sung, Hyunju³, Cho, Gyeongwha⁴, Shin, Jiyoun⁵

The coronavirus has altered the long-standing educational environment. Fully implemented remote classes have raised the essential question of the perception of the nature of education. The ongoing pandemic has provided fundamental challenges on setting and pursuing future education. In this regard, the study aims to propose directions for remote classes based on online education, determine their educational significance, and to suggest directions and goals for future education. Toward this end, O Elementary School analyzed and presented a process of preparing and practicing remote classes according to their educational orientation and purpose in the field. The study closely examined the strategies of teachers for developing and designing various contents in terms of quality. Moreover, we listened to their concerns and their methods for overcoming them. Various subjects are taught in elementary school classes; thus, the burden on teachers is tremendous. To overcome this scenario, teachers effectively respond by developing and utilizing learning contents for online teaching based on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y. Through e-learning centers, co-production of content, data sharing, interactive classes using Zoom, and online platforms, we provided evidence that teachers can lead future education as well as prepare for the upcoming educational environment. In addition, managers and parents lent active support to overcome these difficult situations. This study aimed to contribute to the design of the goals and directions of future education in Korea by examining and analyzing actual experiences.

Keywords : Coronavirus 2019, remote classes, teacher learning communities,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interactive classes, online platforms, future education

1.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yhcho@cje.ac.kr (Lead Author)

2. Teacher, Ochang Elementary School, qufrhc@naver.com (Co-Author)

3. Teacher, Ochang Elementary School, hyonchu12@korea.kr (Co-Author)

4. Teacher, Seonghwa Elementary School, startop1020@gmail.com (Co-Author)

5. Teacher, Ochang Elementary School, shinjippang@korea.kr (Co-Author)

<부록 2-관리자용>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질문지와 소감문

1. 성함 :
2. 성별 :
3. 직위 :
4. 경력
 - 1) 교장(감) 경력 : 년
 - 2) 본교근무경력 : 년
5. 소감문

자유롭게 느낀 점을 "충분히"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에세이와 같은 편안한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1) 원격 수업 기간에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셨습니다?
- 교사 측면 :

- 행정적 측면 :

- 환경적 측면 :

- 2) 원격 수업 기간에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 교사 측면 :

- 행정적 측면 :

- 환경적 측면 :

- 3) 원격 수업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까?

- 4) 코로나-19는 그동안 상상했던 미래교육의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게 만 들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될 미래교육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교육정책은 무엇입니까?

<부록 2-교사용>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질문지와 소감문

1. 성함 :
2. 성별 :
3. 직위 및 담당
 - 1) 담임교사 : ()학년
 - 2) 비담임교사 :
4. 경력
 - 1) 총경력 : 년
 - 2) 본교근무경력 : 년
5. 업무 :
6. 원격 수업 진행 방식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빈칸에 작성해주세요.>

- 1) 쌍방향 실시간 운영형(ZOOM, 구글Meet, 네이버 밴드 채팅, 카카오톡 등)
- 2) 콘텐츠 활용형
 - 자체제작(동영상 제작, 파워포인트 녹화, 유튜브 등)
 - 외부자료활용(EBS, 디지털 교과서, '바로학교', 학년밴드, 인디스쿨, 아이스크림, 자체 제작 의 자료 등)
- 3) 자료 게시 및 과제 제시형(e-학습터, ebs온라인 클래스, 위두랑, 구글폼, 구글 프레젠테이션, 클래스팅,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등)

7. 본인의 원격 수업 시행 시기 및 이유 (플랫폼 가입 시기부터)
 - 1) 시행 시기 :
 - 2) 시행 이유 :

8. 소감문

자유롭게 느낀 점을 "충분히"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에세이와 같은 편안한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1) 원격 수업 초창기 시행될 때 어떻게 준비하셨습니다?
- 좋았던 점 :

- 어려웠던 점 :

-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

- 2) 원격 수업을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셨습니다? (원활한 원격 수업을 위한 실천적 방안 혹은 학생들과 겪은 일화 중심으로)

- 3) 원격 수업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4) 원격 수업 기간에 학교 내 교직원과 어떻게 협력하셨습니까?
 - 좋았던 점 :
 - 어려웠던 점 :

-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

5) 원격 수업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까?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수업 진행을 위한 플랫폼 개발 및 제공, 현장의 소리를 듣는 다양한 협의체 및 정책모니터링 제공, 수행 평가 및 지필 평가 비율의 학교 자율권 확대 및 보장, 학교구성원 모두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회 보장 등 다양하게 생각해주세요.)

6) 코로나-19는 그동안 상상했던 미래교육의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될 미래교육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교육정책은 무엇입니까?
 (교사의 자율성 확대, 교육과정 자율화, 학급당 학생 수, 돌봄교실, 교육격차 해소 방안,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입시제도 개선 등 다양하게 생각해 주세요.)

<부록 2-교육공무직 및 행정직용>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질문지와 소감문

1. 성함 :
 2. 성별 :
 3. 직위 :
 4. 경력
 1) 총경력 : 년
 2) 본교근무경력 : 년
 5. 업무 :
 6. 소감문

자유롭게 느낀 점을 "충분히"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에세이와 같은 편만한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 원격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셨습니까?
 2) 원격 수업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까?
 3) 코로나-19는 그동안 상상했던 미래교육의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될 미래교육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교육정책은 무엇입니까?

<부록 2-원어민용>

Study Participants Basic Information Questions and Essay

1. Name :
 2. Gender :
 3. The year in charge :
 4. Career
 1) Total teaching experience in Korea : years
 2) Work experience of this school : years
 5. How to proceed with remote learning

<Please fill out the blank using the example below.>

1) Interactive real-time learning (ZOOM, Google Meet, Naver band chatting, Kakao talk, etc.)
 2) Content Utilization learning
 - Self-creating contents (Making videos, recording PowerPoint, YouTube, etc.)
 - Use of external contents (EBS, digital textbooks, Baro schools, Indischools, Ice -cream, non-self-produced materials, etc.)
 3) Presenting learning contents and presenting assignments (E-learning center, EBS online class, Widurang, Google Form, Google Presentation, Clasting, Naver Band, Kakao Talk, etc.)

6. Essay

Please "sufficiently" share what you feel about remote learning in this school. You can describe it based on the following information. Just write it in a comfortable.

1) How did you prepare for the first remote learning?
 - What is your good experiences in preparing? :
 - What is you difficulty in preparing? :
 - What is your strategy for overcoming difficulties? :

2) How have you managed the remote learning so far? (based on practical experience for smooth remote classes or with students)

3) How do you plan to operate remote learning in the future?

4) Corona-19 make it possible to actually experience the image of future education that had been imagined. It is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us. What education policy would you like to propose for future education?

<부록 3-인터뷰 질문지>

<소감문>

소감문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요구되거나 궁금한 것을 질문함. 따라서 연구 참여자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 상이함.

<일반적 질문>

가. 수용과정, 준비과정

* 교육공무직을 제외한 각 직능별 심리적 측면과 운영 준비 방안

질문 1. 그 동안 어려우셨죠? 초기에 심리적으로 불안하셨나요?

질문 2. 3월과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3. 어떻게 대체할 계획이셨나요?

나. 실행과정

* (교육 철학 및 가치가 포함된) 심리적 측면과 극복방안 및 운영방안
- 수업면
- 생활교육면

질문 4. 의도한 대로 수업을 잘 실행하셨나요?

질문 5.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질문 6. 동료와 협력한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